

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

1. 기본정보

이름	허해*	학번	
파견국가	캐나다	파견도시	밴쿠버
파견대학	랑가라컬리지	기간	2016. 8. 7(일) ~ 8. 27(토)

2. 파견대학, 수업 및 Activity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파견대학은 캐나다 British Columbia 주의 밴쿠버에 있는 Langara college 로 시설과 분위기 모두 좋았다. 학교의 시설은 좋았고 깨끗했다. 카페테리아도 넓고 팀홀튼, 스타벅스 등의 카페들이 있어 이용하기 좋았다.</p> <p>학교 근처에는 스카이트레인 역이 있어 다운타운으로 나가기에도 편리했다. 그리고 학교로 가는 통학버스도 평일에는 자주 다녀서 아침 등곳길에도 불편한 점은 없었다.</p>
수업	<p>분반의 경우 listening test로 반을 나누었다. 5개 반으로 분반되어 수업을 하며 저의 경우에는 한 반에 18명 정도 되었고 수업방식은 파트너와 대화를 하거나 주어진 문제를 함께 준비하고 해결하는 방식이었다. 과제는 많지 않았으며 선생님이 굉장히 재미있으시고 열정적이셔서 수업 분위기도 좋았고, 덕분에 같은 반 친구들과도 잘 친해져서 재밌게 수업할 수 있었다. 같은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에는 한국, 일본인들이 가장 많았고 중국과 타이완에서 온 학생도 있었다.</p> <p>선생님은 학생들이 고민 없이 밴쿠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생들에게 각자 말할 기회를 고루 주셨다.</p> <p>수업은 상황별 용법들, 캐나다에 관한 내용, 역사 등에 대해서 배웠고 수업 전반에 걸쳐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다.</p>
Activity	<p>Activity에 관한 입장료 등은 개인이 추가로 지불하지 않았다. 보통은 학교에서 오전 수업을 하고 점심이후에 스쿨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.</p> <p>Kayaking, Vancouver aquarium, Vancouver museum, Whistler를 방문했다. 카약킹은 옷이 많이 젖는 편은 아니지만 젖을 수도 있으므로 여분의 바지 정도를 챙겨갔다.</p>

	<p>휘슬러는 멀기 때문에 아침 일찍 학교에서 출발하였다. 아침에는 추워서 겹옷을 가져가는 것이 좋고 복장은 편하게 입고 가는 것이 좋다.</p> <p>Discover Vancouver 때에는 많이 걸어 다녀서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을 추천한다.</p>
--	--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<p>날씨는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, 공기는 시원하여 기온이 높은 편은 아니나 햇볕과 자외선이 매우 강해서 모자와 선글라스는 반드시 챙겨가는 것이 좋다. 우리나라처럼 습하지는 않았다. 비가 온 날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작은 우산이라도 챙겨가는 것이 좋다.</p> <p>날씨가 쌀쌀할 땐 추울 수도 있으니 긴팔의 옷도 가져가는 것이 좋다.</p>
안전	<p>밤늦게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위험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.</p>
숙소	<p>내가 배정받았던 홈스테이는 2층 집이었고 나는 1층에 있는 방을 사용했는데 넓고 편했다. 우리 집에는 나와 비슷한 연령의 자녀들이 2명이 있어서 취침시간은 10시~11시보다는 늦은 편이었다.</p> <p>본인의 방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권하고 빨래는 일주일에 한번 할 수 있었다. 집안에서 외출할 때 신는 신발 이외의 슬리퍼를 신고 다녔다. 내가 갔을 때는 리우올림픽 시즌이라 가족들이 올림픽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았다. 산책을 나가거나 쇼핑 가실 때 같이 간 적도 있었다.</p> <p>홈스테이 부모님께서 말도 잘 걸어주시고 특히 아빠께서는 아이스하키 경기 관람이나 카누를 태워주시기도 하였다. 그때의 기억이 정말 좋게 남았다.</p> <p>홈스테이는 가족의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하다면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.</p>
식사	<p>학교식당() 홈스테이 (V) 외부식당 () 기타()</p> <p>아침은 시리얼, 요거트 또는 와플을 먹었고 점심은 항상 샌드위치로 홈스테이 맘이 싸주셨다. 저녁은 6시 반 쯤에 먹고 음식은 나름 다양하고 맛있게 먹었던 것 같다. 집에서 저녁을 먹지 않을 경우 미리 연락하여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.</p>

교통	<p>나의 홈스테이는 밴쿠버의 옆에 위치한 Burnaby라는 지역이었다. 학교는 1 zone인데, Burnaby는 2 zone 이라서 학교에서 2 zone 용 compass card를 주었다. 홈스테이와 학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 버스를 2개 갈아타야 했다. 학교까지 가는 버스는 아침에는 자주 다녀서 불편함은 없었지만 그 전에 갈아타야했던 버스가 배차시간이 30분이고 늦은 오후에는 1시간에 1대씩 와서 시간에 맞추어 다니는 것이 중요했다.</p> <p>밴쿠버의 교통은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은 아니어서 편리하다고 생각한다.</p>
----	---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:원

※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.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개인부담금(항공료 외 기타)	1,711,200	출국 전 사전 납부
유심	49,000	한국에서 구매
개인 관광 입장료	96,840	
기타	880,600	쇼핑 및 기념품, 식비 포함
합계	2,737,640	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크림, 모자, 선글라스는 필수로 챙겨가는 것이 좋다. 햇볕이 너무 강하고 뜨겁기 때문이다. - 홈스테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출국 전에 이메일로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 - 음식이 맞지 않을 것 같은 경우 컵라면이나 핫반 등의 한국음식을 약간 챙겨가도 좋을 것 같다. - 휘슬러 등의 액티비티에서 신을 운동화와 카약킹 등을 위해 샌들도 챙겨가는 것이 좋다. - 날씨가 추울 수도 있으므로 겹옷이나 긴팔 옷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. - 유심을 미리 사가도 좋고 현지에서 구매해도 무방하다. - 입학허가서, 홈스테이 주소를 프린트해서 가야한다. (입국심사 시 필요할 수 있음) - tax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아간다면 좋겠다.
--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이번 프로그램이 끝나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다녀오길 정말 잘했다는 것이었다. 처음에는 3주 동안 영어가 얼마나 많이 향상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었다. 그런데 3주 동안의 경험은 나 자체를 많이 변하게 했다. 첫째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늘었다. 그전에는 영어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서 두려움이었는데 다른 학생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배우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. 이것은 나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. 둘째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편견을 없앨 수 있었다.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것, 밴쿠버의 다양한 문화와 시민의식을 보고 많이 느낀 것 같다. 셋째로 모든 것을 해보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. 3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,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그냥 시도해 보면 그 결과가 어땠든 많은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두려워서 하지 않았으면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.

3주가 짧은 기간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너무 빨리 지나가버려서 마지막에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.

학교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위해 온 다른 나라의 학생들이 많았고, 테스트 결과에 따라 분반을 했기 때문에 섞여서 수업을 들었다. 그러면서 다른 나라 학생들과도 문화교류를 할 수 있었고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많아 정말 재미있었다.

밴쿠버의 날씨도 좋아서 여러 활동을 하기에 적절했던 것 같다. 우리나라에서 해보지 못했던 activity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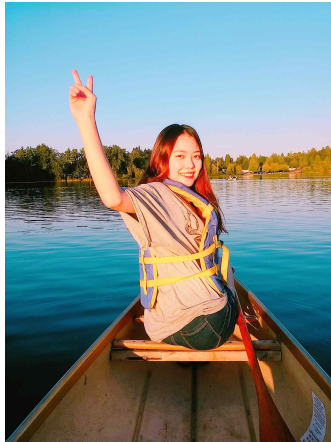
홈스테이를 하면서 버스시간 때문에 불편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 점 이외에는 모두 좋았다. 집 주변에 있던 공원,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볼 수 있었던 sunset, North Vancouver의 야경 등이 너무 아름다웠다. 홈스테이 가족 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던 점도 좋았다. 밴쿠버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다고 느꼈다.

마지막으로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과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게 된 것에 감사하다.

7. 사진보고서 (6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가능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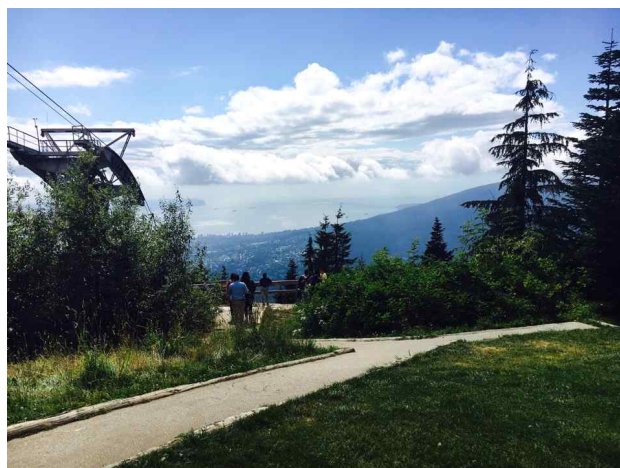
Kayaking - Deep Cove



Canoeing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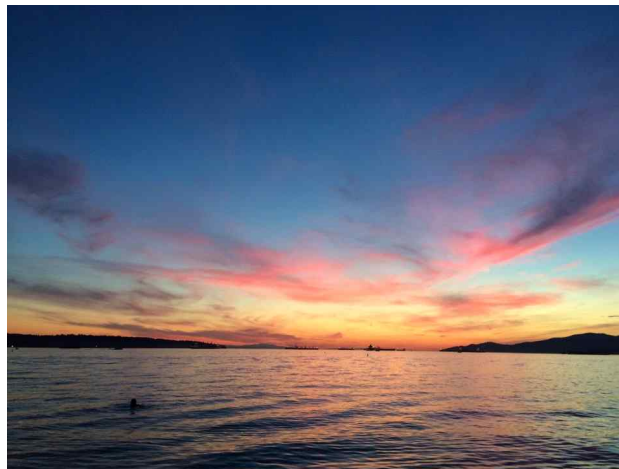
English Bay



Grouse Mountain



Whistler



English Bay - sunset